

치 사

**포교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진
하셨던 스님과 재가자들을 모시고
제22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봉행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22회 포교대상은 후보자들
모두가 포교현장의 각 분야에서 공적
기간이 길고 뛰어난 공적을 쌓아 심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각 분야에서
묵묵히 포교에 전념하기에 종단은**

**발전하고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포교는 자기 수행으로 얻은 지혜를
다른 이와 나누는 적극적인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45년간
맨발로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을 만나며
오로지 포교의 길을 걸으셨던 것은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포교대상을 수상하시는 대행스님은
비구니 최초로 포교대상을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대행스님은 국내는 물론 외국까지 한마음선원 분원을 개원하여 한국불교의 지평을 넓혔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거사 법회 등 다양한 계층포교로 현 시대의 많은 불자들에게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불교신문 창간, 법문집의 외국어 번역, 불서 출판 등으로 불교의 현대화, 세계화로 한국 불교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대행스님의 포교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이끄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고
계시는 일면스님, 지역포교는 물론
불교방송의 전국적인 확대에 큰 기여를
하신 류진수 불자님, 불교계의 권익과
문화 발전에 공헌하신 이용부 불자님,
불교의 언론매체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홍사성 불자님을 공로상으로
모셨습니다.**

**이 밖에도 포교현장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10분을 원력
상으로 모셨습니다. 한분 한분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포교는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들에게 부촉한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포교는 모든 불자들의 의무
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의 원력과
자비심을 본받아 많은 불자들이 포교의
일선에서 정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포교대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또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불기 2554년 11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